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과 공직에 헌신하는 자세



임진혁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8월 졸업예정
- 2020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일반행정(전국) 합격자 임진혁입니다. 제가 시험에 도전하기 전에 읽어본 합격수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읽어본 합격수기들은 수험생활 동안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이제는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II. 1차시험 공부방법

1. 과목별 접근

(1) 헌법

윤우혁 강사님의 미니헌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미니헌법 강의는 7급 강의이지만 5급 수준으로 콤팩트하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강사분을 선택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한번 정도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서가 하나 있으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 백과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했던 강의에서 활용한 교재를 기본서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기출문

제(7, 9급, 국회 8급 등)를 풀어보고 OX문제집도 하나 풀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여 헌법에 시간을 꽤 많이 투자하였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초시 때는 1차시험 준비기간을 2달 반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30분~1시간씩 헌법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도 있었고 문제를 풀 때도 있었습니다. 공부 내용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고 꾸준히 했다는 점만 기억에 남습니다.

합격한 해에는 1차시험 준비기간을 조금 줄였고 헌법공부의 절대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공부한 내용은 금방 되살아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OX문제집과 기출문제, 그리고 조문이 예쁘게 정리된 얇은 참고서를 봤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공부한 감이 있었지만, 제 PSAT 전략과 맞물려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논리 시간 전에 뇌를 쉬어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5분의 시험시간 중 20분만을 사용하여 마킹까지 끝내고 5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언어논리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2) 언어논리

PSAT 과목 중 제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언어논리 첫 지문이 잘 읽히지 않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언어논리 추세가 1~4번, 21~24번 지문 자체가 정보량이 많고 흐름은 없는 글이라서 읽고 단번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읽지 않았던 모의고사 문제를 시험장에 들고 와서 헌법시간 직전에 읽었습니다. 일종의

예방접종과도 같은 방식으로 뇌를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헌법은 지식을 꺼내어 푸는 시험이라 워밍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의는 초시 때 이나우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고 이해황 선생님의 논리문제 관련 책들은 전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관련 부분은 따로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좋고 책을 독학하셔도 좋습니다.

문제 푸는 스킬은 논리문제들을 먼저 건너뛰고 독해문제(긴 글) 위주로 푸는 평범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독해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논리문제의 난이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논리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험을 다시 본다면 2020년도 시험 기준 3~4번, 23~24번 문제를 버리고 논리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형 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족한 독해력으로 인해 특정유형이 약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골고루 틀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따라서 유형 별로 접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언어논리는 평생 쌓아온 독해력과 사고력이 가장 많이 개입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논리의 점수가 수험 초반과 비교하여 비슷합니다. 따라서 언어논리가 약점인 분들은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른 과목의 점수는 올리기보다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메꾼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됩니다.

(3) 자료해석

신헌 강사님의 기본강의로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 초반부터 점수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PSAT 합격은 세 과목 전부를 잘하는 것이 왕도가 아닙니다. 못하는 과목은 방어할 정도로만 풀면 되고 이를 잘하는 과목에서 메꾸면 됩니다.

자료해석은 빠른 계산력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산력이 빠르지 않을 때에는 본인만의 문제 푸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계산과 어림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실전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림산이 모의고사에서는 오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문제는 숫자를 깔끔하게 주기 때문에 어림산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자신이 자료해석에서 높은 점수가 필요하지 않다면(다른 과목을 잘한다면)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버리고 남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해석에서 안타까운 점은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바로 오답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림산에서 숫자 한두개 틀려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의 보기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정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독해부터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능력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석치수 선생님의 비타민 연습교재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계산능력을 올리기에는 좋은 방식이지만 저는 따로 풀지는 않았습니다. 1차시험 공부 기간 동안 매일매일 푸는 모의고사에서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상황판단

법조문과 약간의 독해문제, 그리고 많은 퀴즈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입니다. 박준범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제 점수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1~10, 19~20, 21~30, 39~40번 문제(총24개)를 먼저 확실하게 풀고 남은 퀴즈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저 24개의 문제는 언어논리와 비슷한 독해문제이거나 법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10번에서 퀴즈 문제가 다수 나오게 되는 등 독해, 법조문 문제의 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 시험기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퀴즈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인이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이 고득점이 가능하여 상황판단 퀴즈문제를 적당히만 풀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퀴즈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퀴즈문제 푸는 것이 PSAT 공부 중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퀴즈문제만을 모아놓은 퀴즈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합격자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말 어려워 보이는 몇 개의 퀴즈 문제는 버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중간에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누락하기만 해도 오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2. 1차기간 동안의 생활

(1) 루틴의 단순화

루틴을 단순화 하라는 이유는 1차시험 날의

스케줄을 몸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헌법문제를 비슷하게 풀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모의고사를 1부 씩 풀고, 저녁때 채점 및 틀린 것을 확인하며 피드백하는 단순화된 루틴을 짰습니다. 시험 막바지에는 시험시간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그 과목을 풀 수 있도록 공부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루틴이 단순화되면 공부계획을 따로 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기계처럼 문제를 풀고 밥을 먹고 틀린 것을 다시 살펴보는 챗바퀴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뇌도 적응이 되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해소시켜주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실전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시험장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의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도 보고, 의자 높낮이가 다른 의자에서 풀어보는 것 등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모의고사 중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내 위치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러 번의 모의고사 점수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태까지 보았던 모의고사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는 그 모의고사에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수는 본인의 진짜 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점수 기준으로 상위 15%~20% 안쪽에 위치하는지를 보

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의 가장 낮은 점수가 상위 15%정도라면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실전에 임해도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도 첫 1차시험 때 실전모의고사를 한 번도 응시하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한 채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 결과 실전에서 너무 긴장하여 언어논리 시간에 잠깐 혼절해서 감독관 분이 부축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차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2주에 한 번은 실전모의고사에 응시했고 4회를 응시했습니다.

(3) 오답노트와 노하우

PSAT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인 논리학 공식, 빠른 계산 방법, 상황판단 퀴즈 푸는 방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서, 강의,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 등에서 가져와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날짜와 요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1이 월요일이라면 3/1은 무슨 요일인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박준범 강사 강의). 실전에서 날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두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답노트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담으면 됩니다.

또한 PSAT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문제풀이 방식이나 과목별 전략 등을 정리해놓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상황판단에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퀴즈가 나올 경우 무조건 풀지 않는 원칙과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컴퓨터처럼 문제를 푼다면 실전에서 특정 문제를 풀 것인

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노트에 따로 쓸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차시험은 COVID-19로 인해서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생활소음은 당연히 들리게 됩니다. 정숙한 독서실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원룸에서 공부를 할 때 문을 열어놓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누군가의 통화소리나 자동차 배기음 소리에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언어논리에 약한 관계로 언어논리 시간만 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심환을 먹었는데 나름 효과적이었습니다. 점수는 높지는 않았지만 긴장도가 체감 상 내려갔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다만 청심환을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전모의고사에서 한 개를 전부 먹어 보기도 하고, 반 개만 먹어보기도 하고, 먹지 않아보기도 하면서 저는 한 개를 다 먹는 것이 긴장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실전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실전모의고사에서 사전 테스트를 할 것을 권합니다.

1차시험은 두뇌회전이 많이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하루 공부가 끝나면 몸과 두뇌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1차시험 준비 기간에는 공부 시간 자체를 조금 줄였습니다. 공부를 오후 9시 정도에 끝내고 이후에는 두뇌가 쉴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다른 수험생 분들

은 부족한 과목을 40문제 더 푸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었고 하루에 모든 과목을 한번 씩만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일요일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쉬었습니다.

문제 양치기는 1차 공부 초반에는 감을 잡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양치기가 너무 과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틀린 문제들을 피드백하면서 체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양치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매일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1세트 씩을 풀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2차시험 공부방법

1. 각 과목별 접근

(1) 경제학

저는 계산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료해석에서는 계산실수가 없도록 어렵산(반올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경제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계산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탈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제 경우 2019년도 시험 1문에서 처럼 앞의 소문항의 계산실수로 인해 뒤의 소문항까지 전부 틀린 기억이 있었고 이후에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때에도 수식 하나하나 건너뛰지 않고 확실하게 쓰면서 풀었습니다.

경제학은 5-Tool 과목입니다. 정의, 수식, 그래프, 정답, 경제적 함의까지 이 5가지를 하나의 문제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 시험 기준으로 정답 수치만 맞춰도 고득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수치만 맞아도 절반 이상의 점수를 가져가는 시험기조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도 시험기조가 변화하고 있어 교과서 같은 정의와 서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서나 교과서에서 핵심 이론들의 정의는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답안지에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강의는 황중휴 강사님과 김진욱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문제집은 황중휴 강사님 연습책으로 시작해서 김진욱 강사님의 Step1,2,3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국제경제학 부분 또한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김진욱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에 황중휴 강사님의 교재 내용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순환 기간 때는 시중에 있는 경제학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기존에 보던 문제집이 아닌 생소한 문제를 푸는 것이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은 매일 공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9년 시험에서 경제학이 과락 바로 위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매일 최소 2시간은 경제학에 시간을 썼습니다. 체화된 실력이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2) 행정법

법 과목의 논리 전개 방식이 마음에 들어 좋아했던 과목이지만 2020년도 1문에서 문제를 잘못 읽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 문제를 다시 읽어보지 않은 것이 실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오독하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 읽기를 권합니다.

행정법 과목을 암기과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와 암기가 적절하게 섞여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안을 구성하실 때 논리전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논리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암기한 내용을 쓰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의는 정선균 강사님의 강의에서 류준세 강사님의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따로 답안지 특강 같은 것은 들었던 적이 없고 3순환 기간 매일매일 써주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시험 과목 중 첫 답안 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과목입니다.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쓸 내용도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답안을 쓰기 시작할 무렵 강사님들의 사례집을 그대로 필사하면서 내용도 암기하고 답안의 흐름을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이런 공부 방식이 나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정선균 선생님의 핸드북에 류준세 선생님의 내용을 보완하여 저만의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저만의 핸드북을 만드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답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를 한 줄이라도 더 언급한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정법도 3순환 기간에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강의 기간 때에는 핸드북을 미리 읽어보고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법 강의 이후 기간에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3) 행정학

박경효 교수님과 송윤현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서브

노트는 박경호 교수님의 수업과 판서에 송운현 강사님의 강의자료를 덧붙였습니다. 행정학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과목입니다. 매 강의마다 새로운 논문자료나 강의자료를 짧게 정리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 서브노트는 1회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시험 직전 막판에 행정학 공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안을 구성하실 때에는 법학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소문항 1에서 문제점을 3가지 측면(예. 개인, 조직, 환경 측면)에서 논했다면 소문항 2에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동일하게 3가지 측면으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서론에서 미리 언급해주는 것도 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첫인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험에서는 코로나 19와 법조타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행정학 이론을 접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학 이론만을 장황하게 썼다가는 제시문과 연관성이 없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을 목차나 내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학은 뜬구름 잡는 학문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2020년도 출제된 문제들은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행정학을 바라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정학 이론과 사례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짚어준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4) 정치학

김희철 강사님의 강의만 들었고 교재도 김희철 강사님의 교재로 단권화 했습니다. 3순환에서 추가 필기 및 기출문제 답안을 정리했고 정치학도 나름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김희철 강사님의 교재와 합쳤습니다.

정치학은 기출문제가 중요한 학문입니다.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를 쓰는 방식으로 실전에서 임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적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써보고 이해할 것을 권합니다.

내용 자체가 방대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교과서를 심하게 넘어서는 내용은 입법고시에서나 보이고 5급 공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버릴 내용은 버리고 챙길 수 있을 만큼만 챙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대한 내용은 시험 전날 1회독을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줄여야 합니다. 저도 최소한도로만 챙겨가되 그 해 3순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최신 논점(예. 기후협약) 들은 따로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5) 지방행정론

선택과목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정보체제론이 새로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된다면 지방행정론은 새로운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양은 지방행정론이 많지만 처음 한 번만 확실하게 공부해둔다면 지방행정론은 답안 쓰기도 편하고 추가로 공부할 자료도 별로 없는 과목입니다. 행정학과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2020년도 시험 기준으로 행정학과 달리 이론이나 현실의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과목이어서 암기과목에 가깝습니

다. 지방행정론을 공부하면 행정학에서 남들보다 다른 시각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2. 2차기간 동안의 생활

(1) 루틴의 단순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직전 기간인 3순환 기간도 제 루틴은 단순했습니다. 오전 또는 오후에 강의를 들으면 그 외의 오전 또는 오후는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공부를 하고 나머지 저녁시간은 다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기간 때는 경제학과 행정법을, 행정법 기간 때는 경제학,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을, 행정학 기간 때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또는 지방행정론을 약간씩 공부하는 중첩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주 6회 아침 8:00 ~ 밤 10:30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 시험 직전에는 밤 11시까지, 일요일도 3~4시간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시간에 대해서 강박증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공부 시간의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공부시간은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공부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3순환 기간 초반에는 일요일도 푹 쉬며 머리를 식혔고 시험 직전에는 불안감에 일요일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2) 스터디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수기에서 스터디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실력 있는 수험생의 첨삭을 직접 받아볼 수도 있고 문제풀기나 답안지 쓰기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험기간 동안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격하는데 교과서나 논문에 있는 내용을 쓴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스터디에 참석하기 위해 오가는 시간을 아껴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질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강사 분께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답안쓰기

3순환 기간에는 답안지를 매일 200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9년도 3순환 끝자락 즈음 손목 통증으로 답안지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 답안 쓰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답안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목차나 핵심 키워드는 꼭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 때문에 3순환 기간 때 시중에 있는 강사 모의고사를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부 방식은 답안의 틀이 많이 잡힌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식하게 많이 써보는 공부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하는지 감을 잡은 이후에 답안쓰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VI. 3차 면접

2020년 면접에서는 직무역량과 공직가치, 인성이라는 2과목만 진행되었습니다. 직무역량은 주어진 자료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추가 개별문제도 하나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나 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직가치 및 인성 과목에서는 경험문제, 딜레마문제가 나옵니다. 경험문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딜레마문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모든 가능성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우수'를 받기보다는 '미흡'을 피하는 전략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행정(전국)의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미흡'만 피한다면 2차 성적대로 합/불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본인을 어필하기 보다는 중간만 하고 2차성적으로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부담감이 적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분들이 아니고 합격을 시켜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청심환도 하나 먹었고 면접관 분들과 아이컨택하며 소심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 땅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의면접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알게 되어 고치려고 의도적으로 상대방 인종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V. 나가며

글을 쓰고 나니 두서없이 쓴 글 같고 잘 읽히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시험은 100명의 수험생이 있다면 100개의 공부방법과 루틴이 있는 시험입니다. 타인을 억지로 모방하기 보다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방식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험에 합격하여 어떤 사무관이 될지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과 공직에 헌신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 결과로 가기 위한 시험은 작은 돌부리에 불과합니다. 글을 읽는 분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